

## 좋은 기자재는 생산성 향상과 원가 절감의 필수조건

양계장의 닭들은 요즘처럼 무더운 여름 날씨를 어떻게 견뎌낼까? 모든 양계장에서는 혹서에 대비해 훌륭한 시설과 다양한 사양관리로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혹서기에는 환기관리, 영양관리 등 닭에게 적합한 시설과 사양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고는 세계화 추세에 발맞추어 지난 27년간 세계적으로 성능을 인정받은 우수한 기자재만을 엄선 국내에 공급하면서 양계산업 발전의 일익을 담당해 온 과학시스템 박만후 사장을 만나 인터뷰를 하였다.



▲ 과학시스템 박만후 대표

### 양계업과의 시작

박만후 사장은 건국대학교 축산과를 시작으로 축산업과의 인연을 맺었다. 1966년 축산과를 졸업, 1969년 (주)파니커의 전신인 천호부화장에 입사 1979년까지 상무로 재직하면서 종계, 원종계와 부화장등 생산부문 과 순종계 개량등 육종 및 건축과 시설의 현대화등의 업무를 총괄 하면서 천호부화장을 국내 최대의 부화장으로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온 담당자였으며 더불어 본인 또한 함께 성장했다고 말하면서 양계업에 대한 강한 열정을 보여주었다.

### 과학시스템 시작은?

1970년대에 천호부화장에 재직시 외국의 육종 회사와 종계장 양계장 G.P.센터 부화장 등을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계사의 대형화에 따른 기계화와 자동화는 더 이상 미룰수 없는 과제임을 깊이 인식하고 선진 기자재를 도입하여 우리 양계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기로 결심, 1979년 10



▲ 과학시스템 본사 전경

월 지금의 과학시스템을 설립하였다. 농동 어린이 대공원 뒤에서 시작, 서초동 사무실을 거쳐 1990년 시장과의 거리를 대폭 단축하고 많은 유통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 640평 규모의 창고를 보유한 지금의 평택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였다.

**자동화를 바라보다**

박사장이 처음 양계업계에 입문할 당시인 1970년대 초기에 미국이나 유럽등 축산선진국에서는 이미 자동화 기계화가 이루어져 있었지만 국내는 전혀 자동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한다. 천호 부화장 재직당시 자동화시설의 도입을 시도하면서 자동화에 대한 개념과 선진국 견학을 통해 전문을 넓혔으며, 국내에서는 그때까지 자동화 제품군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아직 조성되지 못하였기에 박사장은 먼저 외국의 우수한 기자재를 도입 국내에 공급하는 일부터 시작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이 지속되면 노임뿐만 아니라 생산성 때문에라도 자동화는 시대의 필수요소였다고 생각했다. 아무리 좋은 품종의 닭과 사료가 있더라도 자동화시스템 없이는 생산성 향상은 물론 대형화 성력화가 불가능하며 대형화 성력화 없이는 수입축산물과 경쟁할수 없다고 판단, 모두들 관심이 없던 기자재업에 뛰어 들었다.”고

했다.

과학시스템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잘 알려지고 성능이 입증된 상품만을 엄선해서 소비자에게 공급해왔으며 언제나 최첨단제품을 한발 앞서 시도하는 모험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에 바탕을 두고 수없는 외국 방문을 통해 수집한 정보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완성형 토탈시스템을 향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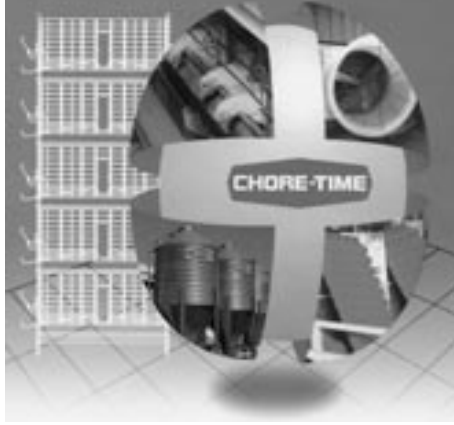
과학시스템은 병아리를 부화하는 부화기에서부터 계란을 1차 가공하는 계란선별포장기까지를 커버하는 모든 제품을 다루지만 기자재는 특성상 사료·약품 등과 같이 일회성 소비재가 아니라,



▲ 농가 상담원으로 활약중인 박만후 사장, 3000여종의 기자재를 다룬다.



▲ 초아타임의 급이기



▲ 초아타임 케이지



▲ 피터자임 부화기

10년에서 30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사용하는 내구 생산재인 만큼 소비자들이 고장없이 오랫동안 잘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제품 선정에 각별한 신경을 기울린다고 한다.

직립식케이지의 경우 동물복지 문제로 케이지 사육이 중단되가는 유럽케이지를 중단하고 A형 케이지에서 직립케이지로 급격히 전환하고 있는 미국으로 시야를 옮겨 세계최대의 양계기구 전문 업체인 초아타임(Chore-Time)사의 직립케이지를 도입하고 있다.

선별기 부분에서는 일본시장의 80%를 차지하는 나벨(Nabel)사 제품을 도입하고 있다. 이는 국내 계란 포장재들이 일본 포장재와 비슷하고 계란의 등급제 시행에 필요한 시스템을 고루 갖춘 브랜드를 깊이 고려했기 때문이다.

오가를 이용한 초아타임 울트라-팬 종계급이는 계사내 모든 종계들이 몰리지 않고 동시에 사료를 먹을수 있으므로 국내 대형 종계장에 가장 많이 보급된 육용종계 제한급이시스템이다.

또한 세계에서 최초로 CO<sub>2</sub> 함량을 조절함으로써 부화율이 가장 높고 건강추를 가장 많이 생산하며 올인올아웃이 가능한 에어스트리머부화기를 생산하는 피터자임(Petersime)사 부화기는 한국에서도 가장 많이 보급된 부화기임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처럼 제품 하나하나를 공급할 때 세계적으로 그 품질과 성능의 우수성이 입증된 상품인가, 대

형화와 표준화에 적합한 상품인가, 국내조건에서도 그 우수성을 그대로 발휘할 수 있는 상품인가 등 유별나게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해 제품을 선정함으로써 농가의 신란율 성장을 부화율을 높이고 파란율을 낮추어 생산원가를 절감케 하여 국제 경쟁력 제고에 일조를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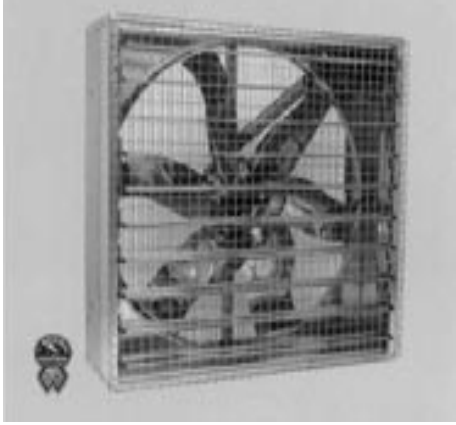
또한 토탈시스템을 공급을 통해 제품 상호간의 연계성을 높이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과학시스템이 책임을 지는 방법으로 고객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다.

세계적인 회사들의 우수한 제품만 선별해 종합적인 제품을 구성, 토탈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는 이 회사의 이름에서도 이런 면모를 읽을 수 있을 것 같다.

### 가격보다 품질과 성능이 더 중요

10~20년을 쓸수 있고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기자재는 5년을 사용하는 값싼 기자재보다 분명 단가가 높다. 그러나 병아리 한마리, 계육 1kg, 계란 한 개를 생산하는 원가를 계산할 때는 좋은 제품이 더 싼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좋은 제품은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싼 제품에 비해 우선적으로 선택되고 있는 것이다.

구입시 양계산물 한 단위를 생산하는데 드는 단가를 분석하여 제품을 구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한다.



▲ M. 유로엠 환풍기(EM50 서터 일체형)



▲ NABEL 계란 선별포장 시스템

## 이제는 규모화, 기업화로

아직도 국내 양계산업은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내재되어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성장프로그램에 따른 자동환경컨트롤은 물론 사육한 자료를 기록 분석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탑재된 컴퓨터 컨트롤시스템의 도입, 올인올아웃 체제로의 전환을 통한 질병 차단이 시급하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규모화된 사업으로의 전환도 준비해야 한다. 이는 좋은 상품을 값싸게 만들 수 있는 요소이며 개방화된 국제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산란계 100만수이상을 보유한 농

가들이 사육하는 마리수가 전체의 산란계 수의 3/4이 넘는다고 한다. 국내의 경우 비교해 경쟁력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또한 150m의 길이에 5~8열의 케이지를 설치하는 미국에 비해 국내는 50~100m길이의 계사에 4~5열의 케이지를 설치함으로써 급이구나 계분벨트 계란 엘리베이터의 구동부 대당 효율성에 크게 차이가 난다. 따라서 기자재의 효율성을 높이고 마리당 투자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대형화 규모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대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취재 | 김영훈 기자  
theme6017@hanmail.net



## 양계속보 게재내용 및 구독안내

### 1. 게재내용

- 가. 새소식 : 국내외 양계업계 소식 및 질병, 생산과 관련된 각종 새소식 등을 게재
- 나. 금후전망 : 양계산물 유통에 대한 금후 전망을 육계, 달걀을 구분하여 면밀히 검토 분석
- 다. 양계산물 시세 : 일별 달걀, 산지 육계가격 및 각종 병아리, 노계, 토종닭 시세 등
- 라. 10대 회사 주간 양계사료 생산실적
- 마. 육용종계 · 실용계, 산란종계 · 실용계의 주간 종란입란 및 병아리 발생실적

### 2. 구독료 및 구독방법

- 가. 구독료 : 1부당 연간 회원 - 5만원, 비회원 - 15만원
- 나. 발송방법 : 팩시밀리 또는 E-mail
- 다. 발송횟수 : 주 2회(화, 금요일)

### 3. 구독신청 및 문의

농협 097-01-000953(예금주 : 대한양계협회)  
(☎ 02-588-7651 담당 : 이 남 희)